

# FTA 발효 이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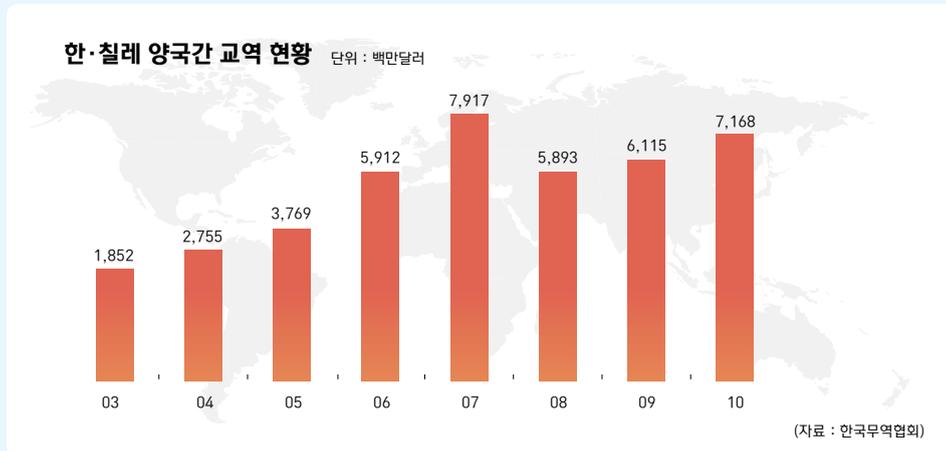


기획재정부

## 한·칠레 FTA

### FTA 7년간 양국간 교역량이 약 4배나 늘었습니다.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 증가로 한·칠레 FTA 발효(2004.4.1) 이후 7년간 양국간 교역량은 18.5억달러에서 71.7억달러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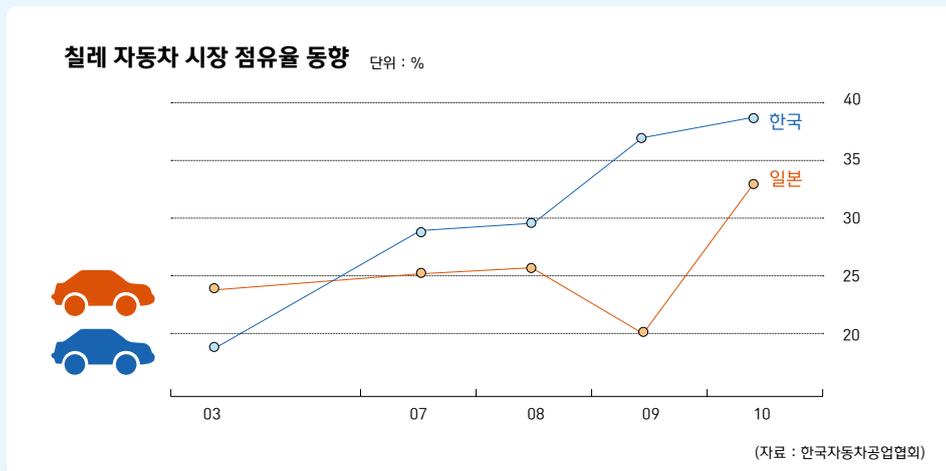
### FTA 신규 진출한 중소기업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FTA 발효 이후 7년간 칠레 시장에 진출한 신규 기업에 의한 수출액 39억달러 중 중소기업이 32억달러를 차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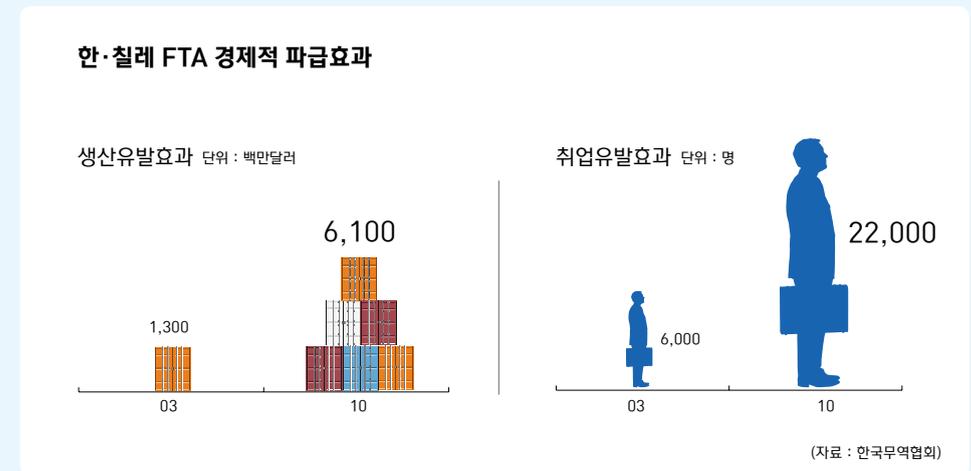
### FTA 자동차 강국인 일본을 제치고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10년 자동차 수출은 11만 2천대로 발효 이전 대비 약 5배 증가하고, 칠레에서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도 18.8%에서 39%로 증가하였습니다.



### FTA 일자리가 2만2천명으로 약 4배나 늘었습니다.

생산 및 취업유발효과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발효 전보다 생산유발액은 13억달러에서 61억달러로 증가하였고, 취업유발인원은 6천명에서 2만2천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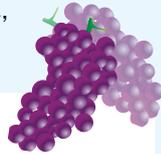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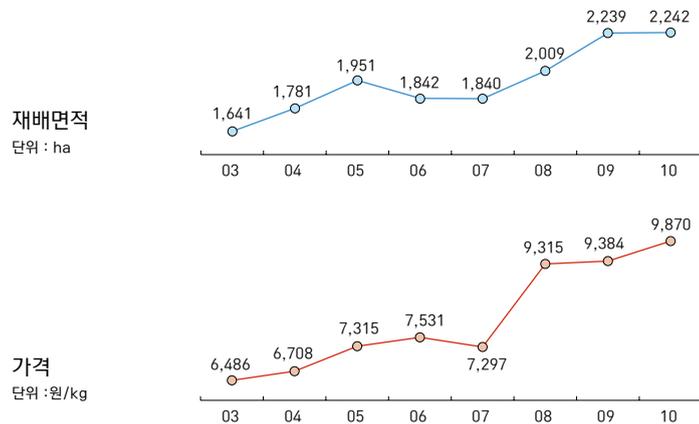
## 한·칠레 FTA

**FTA**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는 당초 우려와 달리 거의 미미하였습니다.

**시실 포도** | 국내 농가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 우려와 달리 국내 포도 가격은 상승하고, 시실 포도의 재배면적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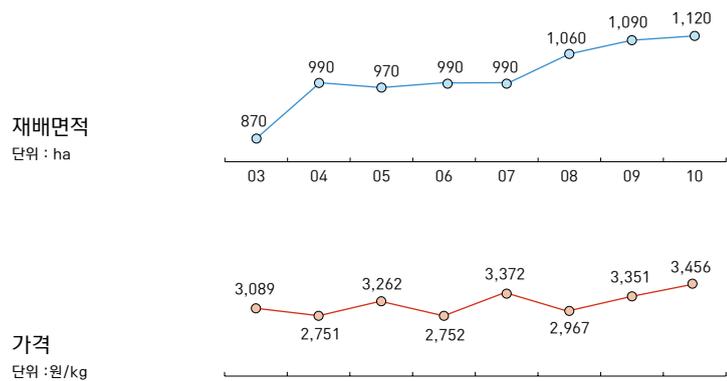
시실 포도 재배면적과 가격 추이



**키위** | 국내 농가의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 우려와 달리 국내 키위 재배면적은 증가하였고,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습니다.



키위 재배면적과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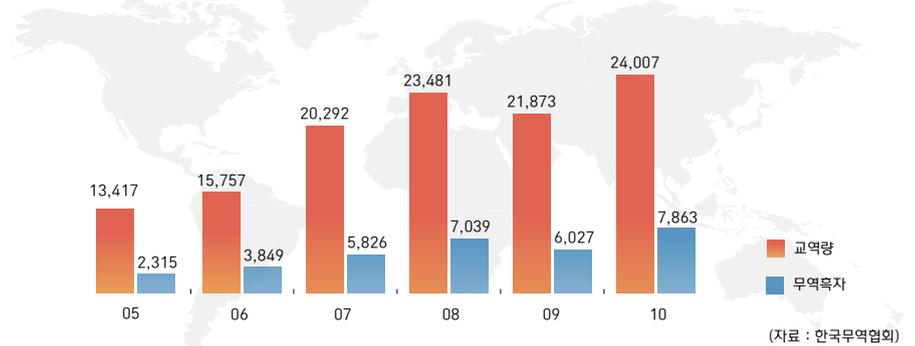


## 한·싱가포르 FTA

**FTA** FTA로 무역수지 악화를 우려하였으나, 오히려 무역흑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고도로 개방된 국가이므로 FTA 발효(2006.3.2) 이후 우리 측의 일방적인 관세철폐로 무역수지 악화가 우려되었으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발효 전 23억달러에서 79억달러로 3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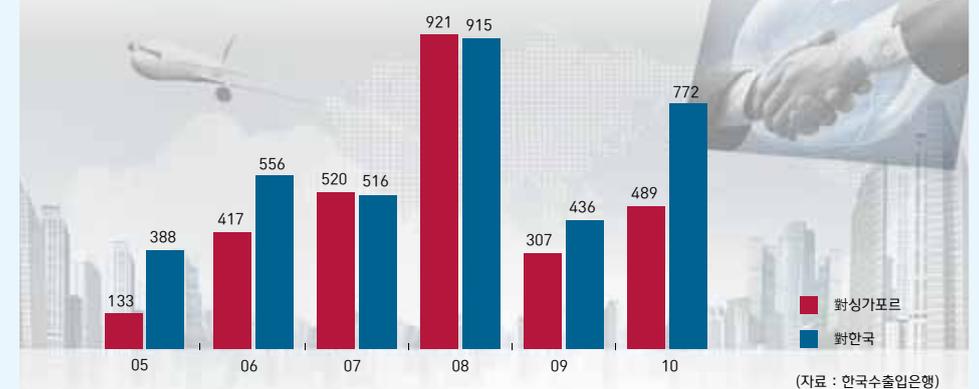
한·싱가포르 양국간 교역 현황 단위: 백만달러



**FTA** 금융, 물류 등 서비스분야에서 양국간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금융·물류·서비스 분야에서 對한국 투자가 증가하고, 운수·창고·서비스 분야에서 對싱가포르 투자가 증가하는 등 양국간 투자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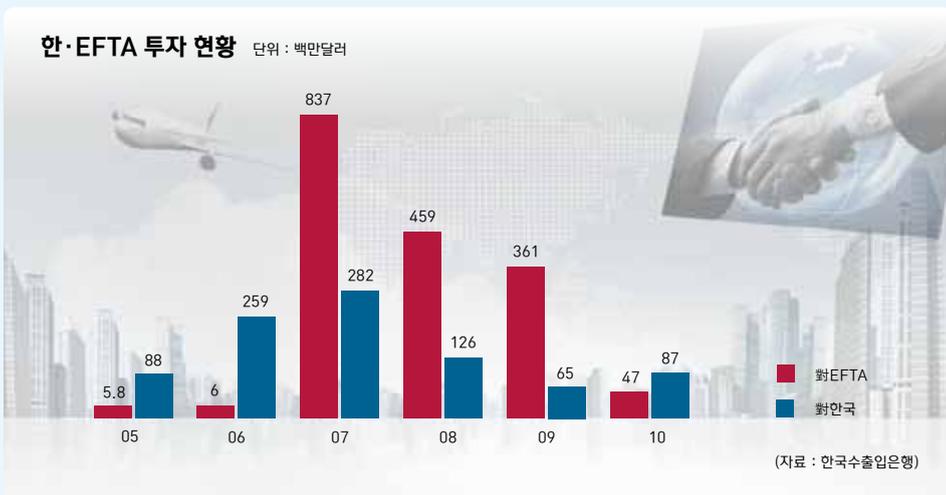
한·싱가포르 투자 현황 단위: 백만달러



## 한·EFTA FTA

**FTA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 양 지역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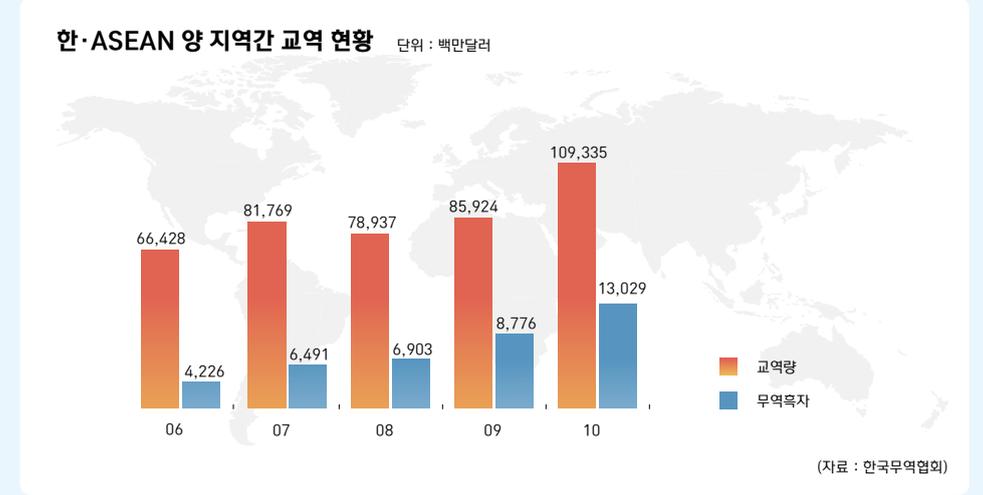
서비스시장 개방, 투자자유화 확대 등으로 STX 그룹의 노르웨이 조선업체 인수, UBS의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인수 등과 같이 양 지역간 투자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한·ASEAN FTA

**FTA 석유제품, 선박, 철강 등의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FTA 발효(2007.6.1) 이후 지속적인 수출 증가에 힘입어 무역흑자도 꾸준히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석유제품, 선박, 철강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한·EFTA 투자 사례**

**STX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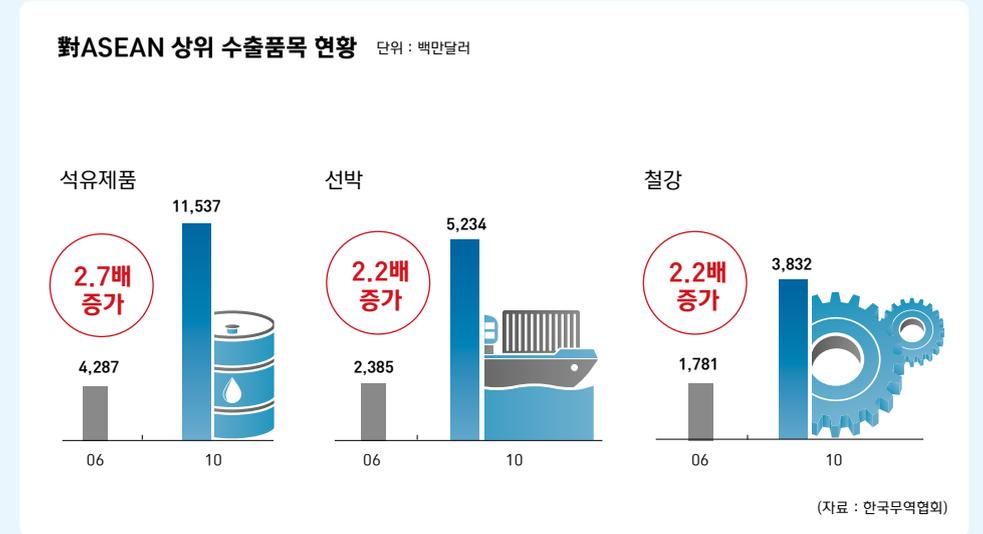
노르웨이 조선업체 AKER Yards 인수 (8억달러, 2007.10월)



**UBS**

하나UBS자산운용 지분인수 (2억달러, 2007.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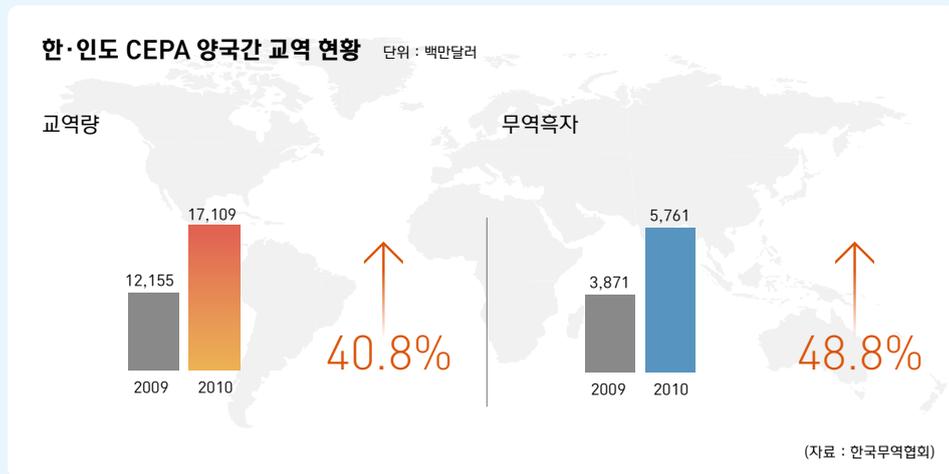




## 한·인도 CEPA

### FTA 발효 1년만에 무역흑자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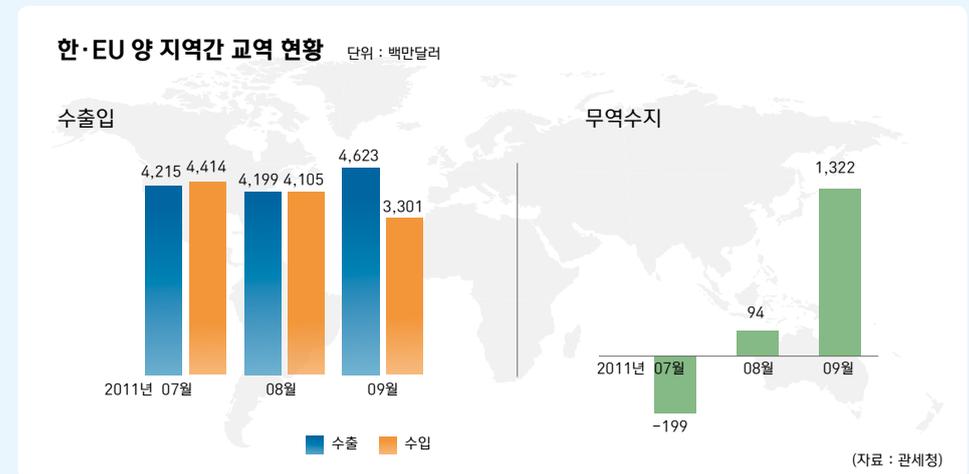
CEPA 발효(2010.1.1) 이후 對인도 교역 규모는 1년만에 40.8% 증가하였으며, 무역흑자도 발효 전에 비해 19억달러 증가하였습니다.



## 한·EU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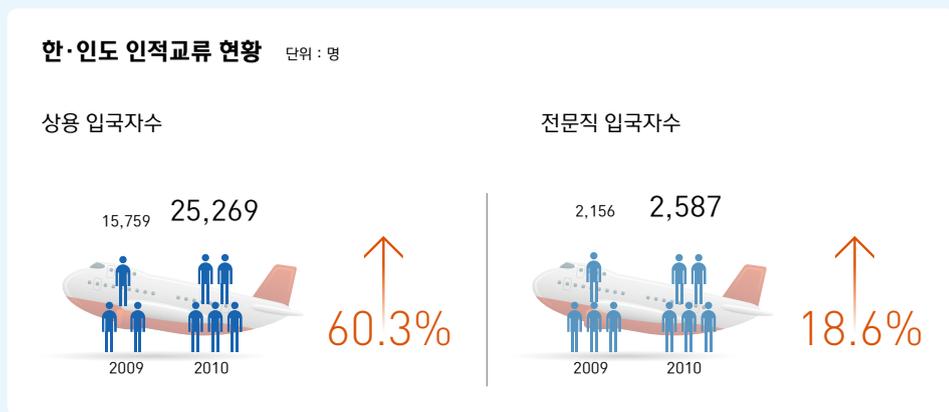
### FTA 유럽발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FTA 발효(2011.7.1) 이후 3개월간 EU 수출은 130억달러, 수입은 118억달러로 12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FTA 수출활용률이 수입활용률보다 높아 한·EU FTA가 수출촉진에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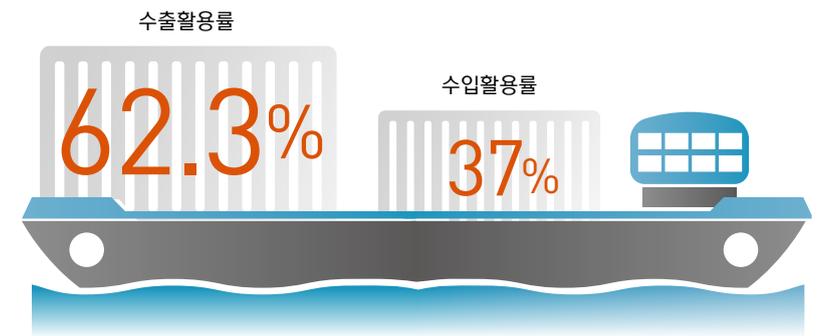


### FTA 다양한 인적·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양국간 교역확대에 따라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상용 입국자수는 발효전에 비해 60.3% 증가한 25,269명, 서비스부문의 전문직 입국자수는 400여명이 증가한 2,587명입니다.



### FTA 수출입 활용률



(자료 : 관세청)

\*FTA 수출활용률 = 실제 혜택받은 품목의 수출액 / FTA 관세 적용 대상 전품목의 수출액

\* 2010년은 추정치  
\*\* 상용 입국자: 단기상용, 단기취업, 산업연수, 상사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목적  
\*\*\* 전문직 입국자: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연구, 기술자(IT업계, 기계기술), 교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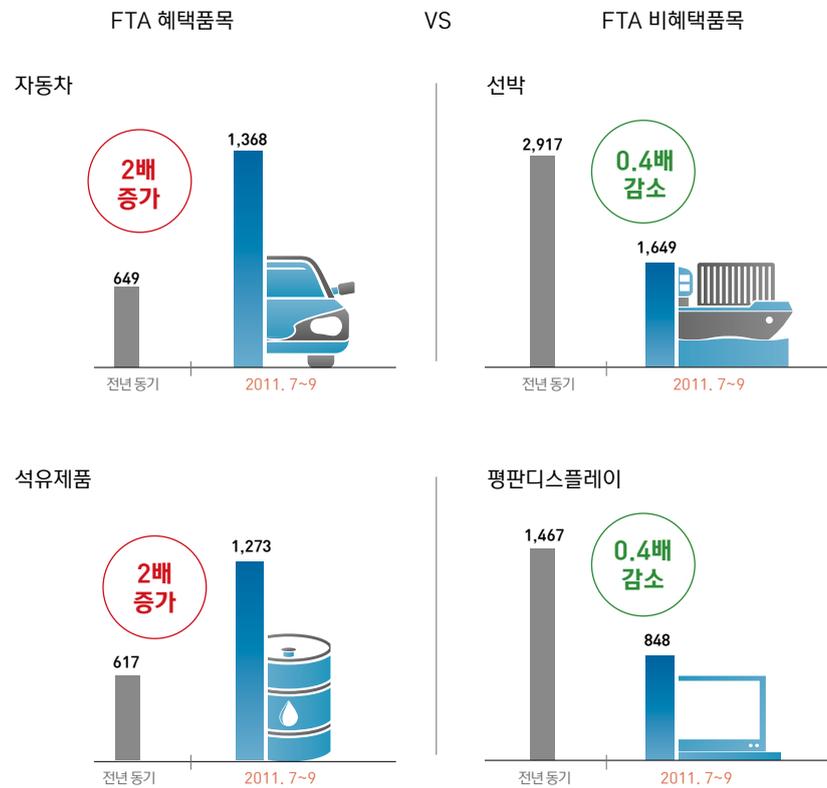


## 한·EU FTA

### FTA 관세 혜택품목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습니다.

자동차, 석유제품 등 FTA 관세 감면 혜택을 받는 품목의 수출 증가가 비혜택품목의 수출 감소를 상쇄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습니다.

對EU 상위 수출품목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자료 : 관세청)

### FTA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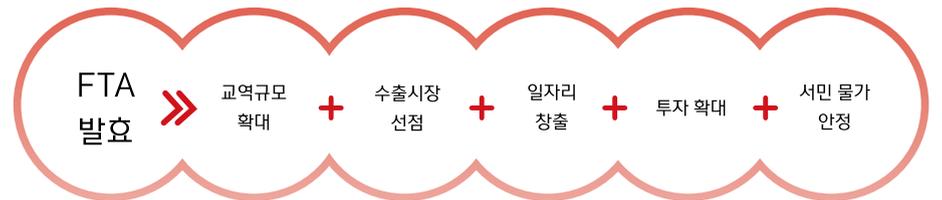
유럽산 냉동삼겹살·와인·아이스크림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품목들의 수입 증가로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 FTA, 다양하고 긍정적인 성과 달성

농민단체 등을 포함한 상당수의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FTA 상대국인 칠레와의 무역협상 당시부터 막연한 두려움으로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FTA로 인한 농가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FTA 발효 이후 교역규모 확대와 수출시장 선점, 일자리 창출, 금융·물류·서비스 등 투자 확대 및 서민 물가 안정 등 긍정적인 성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FTA 체결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시장과 투자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FTA,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FTA,  
세계경제 위기를 넘어  
선진경제로!



기획재정부